

홍해발 물류애로 겪는 중소기업에 유럽·지중해 전용 선적공간 제공한다

- 항차당 475TEU, 장기계약 지원도 1,100TEU로 기존 대비 10배 넘게 확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/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,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,100TEU로 확대한다.

<해수부 중소화주 선복지원 사업 확대안>

지원책	항로	기존	추가
중소기업 전용선적 공간	유럽/지중해	-	400TEU
	미주	75TEU	75TEU
장기계약 지원	유럽/지중해	-	100TEU
	미주	60TEU	1,000TEU
총합		135TEU	1,575TEU

* TEU: 20ft(609.cm)의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

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국내 화주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. 해양수산부는 사태 발생 이후 긴급히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, 지난주 국적 선사 HMM과 협의하여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4척* 투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,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.

* 북유럽 1만 1천 TEU급 1척, 지중해 4천-6천 TEU급 3척

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, 장기계약 지원을 통해 운임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.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(<http://kr.gobizkorea.com>)을 통해 원하는 항로와 선박 출항일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되며, 장기계약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국내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반을 통해 임시선박 투입,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.”라며, “해양수산부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, 수출입기업 등에 꼭 필요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김성원 (044-200-5710)
	해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호택 (044-200-5725)